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삽시다. / 사도행전 26:24-29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 예배부름	..... 인 도 자
※ 예배기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 19 (찬송하는 소리있어) .....
※ 교 독 문	..... 3(시편4편)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526장(목마른 자들아) .....
예배기도	..... 1부 이광주목사 2부 강항구장로
응 답 송	..... 찬 양 대
이달의찬양	.....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갈 이
*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주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사도행전 26:24-29 .....
찬 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삽시다 ” 최세열목사
기 도	.....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440장(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봉 헌	..... (중보기도사역팀) .....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 은 이
※ 찬 송	..... 1장(만복의 근원) .....
※ 축 도	..... 담임목사
※ 축 복 송	.....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이춘호권사	본 문 / 창세기 12:1-4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마태 13:3-9	창세기강해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 씨 뿌리는	<b>금요기도회</b>	
축 도 / 최세열목사	축 도 / 최세열목사	“ 씨 뿌리는	밭의 비유”	대심방이 끝날때까지 쉽니다.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다음주 기도	1부	강은순전도사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2부	박홍만장로
	현금위원	1월 이종봉 윤승호 김혜경 김봉순	다음주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2월 정정희 천사라 김병국 임병호		2부	함경숙권사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B	다음주 루디아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한순권사	
헌신찬양	금주	중보기도사역팀	다음주	새신자돌봄사역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다운 자존심을 지키면서 근사하고, 담대하고, 매력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총독과 왕 앞에서 심문을 당하고 있지만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 1. 그리스도인은 ‘나는 다르다’라는 자존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잘난 맛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자기도취를 벗어나야 하고 ‘나는 필요 없는 고통이라도 겪을 수 있다’는 지나친 순교의식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 ‘나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하며, 능력 있는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자신이 자기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속에서 자기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43:4, 시16:3, 벰전2:9, 출19:5-6, 갈4:6, 습3:17)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존귀하다고 인정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처 속에서도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삶, 어떤 환란을 당해도 힘과 용기와 웃음을 잃지 않는 삶, 어떤 처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는 삶, 당당하고 깨끗한 삶이 바로 다르게 사는 모습입니다.

- 2.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말하자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적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고 대답합니다. 투명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허물까지 다 드러내 보여서 입방아에 오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 3. 그리스도인은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29절에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심문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를 심문하고 있는 총독과 왕이 더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문이 끝나자 그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히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얼굴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 언어나오는 그리스도인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과 가치관, 거룩한 자존심, 당당하고 투명한 삶,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주제1:하나님)  
 제4과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1-18절)

**말씀 살피기**  
 다윗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곳이더라도 심지어는 '음부', 즉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말씀묵상**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심지어는 '스울'. 즉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란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만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全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못하실 일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그 생각의 동기까지 아십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마음에 숨은 죄악도 아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나 위선도 간파하십니다. 이 같은 사실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숨길 것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늘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코람 데오(Coram Deo'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 말씀적용**
1.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삶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 지 이야기해봅시다.
  2.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다면 나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신년축복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심방은 26일(화) : 10구역, 28(목):3구역입니다.
2. 경기노회 신도부가 주관하는 청년집회가 31일 오후4시에 동수원교회에서 있습니다.
3.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4. 다음 주일 찬양예배는 구역별모임으로 갖습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심 일 조 : 김숙희 지대근 안해숙 김귀례 김범진 이완수 김봉순 안복선 김해경 최세열 조성순 김한순 박기환 한옥자 윤종원 이강문 양석임 이종열 박현순 김동기 김보경 허 웅 김순임 강진숙 김애자 김인순 김연학 김장숙 서순자
- 감사헌금 : 이완수 김봉순 김범진 김귀례 이드림 이문순 손주완 박윤희 최세열 조성순 이종춘 심문자 박치국 이영란 김진환 양화임 김애자 이종열 박현순 노재의 김영란 김동현가정 무명2 (일천번제) 김동현 한재현 한진현 (심방) 남공순 박기환 한옥자.
- 여신도주일 : 이영란 김혜경 윤종원 심문자 한옥자 이문순 김영란 무명3
- 건축헌금 : 이유선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김근중 주종임 김선주 원혜경 심복례 최승만 홍강의 김성희 사라희 노순영 총여신도회(1월10일) 최세열 조성순 박기환 한옥자 허 웅 김순님 이종열 박현순 윤종원 김애자 박주한 박정일 박지영 김범진 김귀례 에스더 이유자 노순영
- 비전씨앗 : 박주완 이재승 이은혜 배영인 최정현 최지현
- 신년감사 : 노재의 김영란 한미경 나인원 나인애 김대봉 강은순 이문순 주종임 김선주 원혜경 김홍영 황은상 김정화 김기희 김병국 정선례 방옥남 한상호 차소라 한재현 한진현 이종봉 이춘호 이윤화 이현화 김인순 안진영 안드레 이근옥 송영임 김혜경 안복선 김애경 안재은 안재영 강신근 한은미 강다미 강다원 강승리 오복실 선우명환 장영분 무명3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공영순	박홍만	2	15,000	105		7	강은순	이영선	김숙희	4	10,000	50	
2	정정희	신혜영	정정희	5	14,000	33	박윤희	8	김순님	오복실	오복실	4	15,000	50	허 웅
3	이춘호	황경숙	황경숙	2	15,000	100		9	김인순	이영란	김인순	7	17,000	100	한미경
4	김기희	김경희	김기희	4	14,000	50	최경선	10	장영분	노순영	장영분	2	10,000	80	
5	이문순	원혜경	대심방	14	27,000	30	방옥남	계				46	149,000	1,087	
6	류종란	김애자	류종란	3	12,000	489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 도 실

**로젠탈효과**

로젠탈 효과라는 것이 있다. 하버드대 사회심리학 교수인 로젠탈과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이 제이콥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했다. 이후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 학생을 뽑았다. 그리고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학업성취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믿게 했다.

8개월이 지난 후 이 학생들 대부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를 접지 않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온다. 우리의 뇌는 판단해 놓고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온다.

얼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우리는 된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 자신을 특별하게 보는 눈을 갖기 바란다.

**보석이신 그리스도**

몹시 추운 겨울,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에 초라한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찾아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바이올린을 내려 놓으며 "저는 배가 몹시 고프니다. 이 바이올린을 사주시지 않겠어요? 얼마라도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악기점 주인은 그 정경이 하도 불쌍해서 악기는 쳐다보지 않고 그녀에게 5달러를 주었다.

그녀는 악기를 두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총총히 사라졌다. 그녀가 가곤 후 주인은 고물 바이올린을 켜 보려고 손잡이 활을 줄에 대호 한번 당겨 보았다. 놀랄 만큼 좋은 소리가 났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속을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 기절할 만한 글씨가 써어져 있었다. Antonio Stradivari 1704.

이 바이올린은 그간 행방불명되어 사람들이 200년동안이나 찾아 헤매던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었다. 악기점 주인은 얼른 밖으로 나가 팔고 간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배가 고파서 단돈 5달러에 팔아버린 고물 바이올린은 무려 1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명품이었다.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질 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그리스도는 최고의 보석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6-4호 2016.1.24.

**주현절 셋째 주일**

구원의 주님,  
주님의 행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나이다.

저희가 구속의 은총을 입었나니  
주님만 경외하며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섬기게 하소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은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나를 내세웠고,  
허울뿐인 사랑으로 이웃을 대했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섬기게 하소서.

새해가 밝았지만, 이웃의 아픔은 여전하나이다.  
불의와 불평등, 가난과 억압에 사로잡혔고  
부정과 부패에 맞서다 짓밟히고  
평화를 외치다 거짓 울무에 넘어졌나이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걸게 하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고 주린 자를 배불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양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인진영 최지현**